



아플 때부터 회복·일상까지 장애인의 건강을 끊임 없이 지원합니다

아플 때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진료 지원

-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한 비율 감소

2023년 17.3% → 2030년 16.4%

※ 전체인구 5.3%(2023년 기준)

- 한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가칭)장애친화병원 지정

2025년 0개소 → 2030년 8개소

- 의료기관 편의시설 현황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 단차 제거, 경사로, 주차구역, 출입구,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회복할 때



퇴원 후에도 살던 곳에서 주기적인 치료와 서비스 지원

-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 단축

2023년 20.1일 → 2030년 15.5일

※ 전체인구 2.7일(2023년 기준)

- 재활의료 제공기관 확충

권역재활병원 +2개소(2027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3개소(2027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최대 +35개소(2027년)



-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본격 추진 등 퇴원 후에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건강할 때



일상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 주관적 건강인지율 향상

2023년 20% → 2030년 25%

※ 전체인구 36.2%(2023년 기준)



-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일상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충

2025년 25개소

→ 2027년 112개소



정책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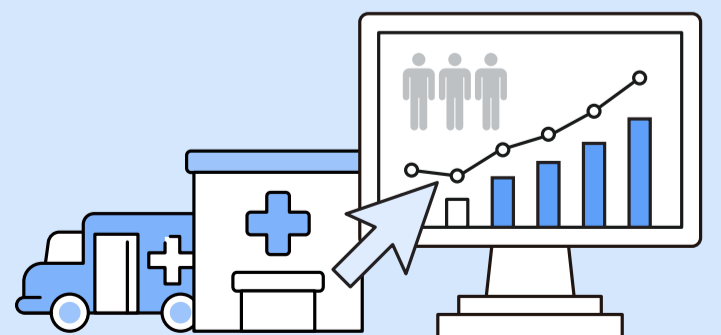


보다 세밀하게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

- 국가 건강 통계에 장애인 구분 추가

- 지역사회건강조사 항목에 장애인등록현황 포함 등

-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문성 강화



아플 때 병원 가는 일이 어렵지 않고, 병원 이용이 편리하도록

1 '의료환경'을 장애인 진료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의료기관 확충

- 한 곳에서 다양한 진료과목·편의지원 이용 가능한 **(가칭) 장애친화병원 지정**

(가칭) 장애친화병원이란?

장애친화 의료기관¹⁾ 세부 기능이 3개 이상²⁾ 집적된 의료기관

1) 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각종 평가제도 개선 및 교육을 강화하는 의료기관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2·3차 의료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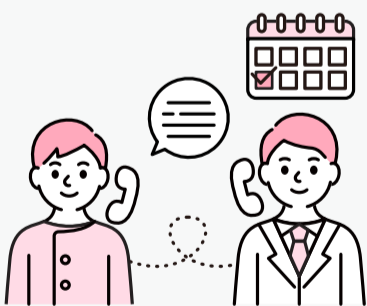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예약·진료·수납 전 과정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중증장애인 우선진료·진료동행)**

<장애인 전용창구 이용 시 진료 과정>

예약(전화)



- 진료예약
- 협진 스케줄 조정
- (필요 시) 이송 차량 배치 지원

접수



- 전용창구에서 접수 (보조인력 등 동행)

진료



- 협진 스케줄에 따른 one-stop 진료
- 수어통역사 등 전담 보조인력 동행

수납



- 전용창구에서 수납 (보조인력 등 동행)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인력 갖춘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속 확충**

<장애친화 의료기관 연도별 확충 계획>

장애친화 의료기관	설치 개소수(시·도)		
	2025년	2027년	2030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 (8개 시도)	15개소 (13개 시도)	주요 시·도 1개소 이상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25개소 (12개 시도)	112개소 (17개 시도)	추가지정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3개소 (10개 시도)	16개소 (13개 시도)	20개소 (17개 시도)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기관	5개소 (3개 시도)	10개소 (8개 시도)	주요 시·도 1개소 이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개소 (15개 시도)	19개소 (17개 시도)	발전방안 마련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6개소 (15개 시도)	18개소 (17개 시도)	시·군·구 확대
 (가칭) 장애친화병원	-	4개소	8개소

* 재정 여건과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진료에 대한 보상과 편의시설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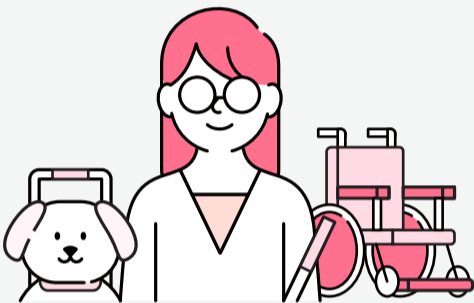
- 투입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장애인 진료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하는 체계 마련
-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식 교육 확대(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교육 실시)

- 병원 가기 전 주출입구, 주차구역, 화장실 등 병원 편의시설 현황* 정보 제공

* 단차 제거, 경사로, 주차구역, 출입구, 장애인전용 화장실·승강기, 시각·청각장애인 안내설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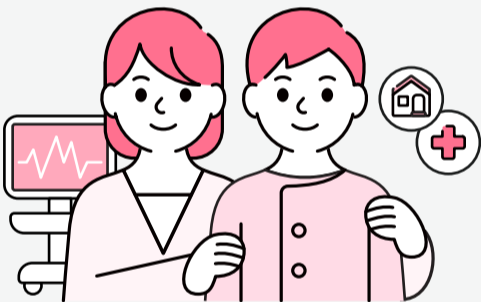
-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② 의료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교부 품목 및 지원 인원 확대

* (예시) 보조기기 교부 품목 확대: (2025년) 44종 → (2029년) 50종



- 중증장애인의 간병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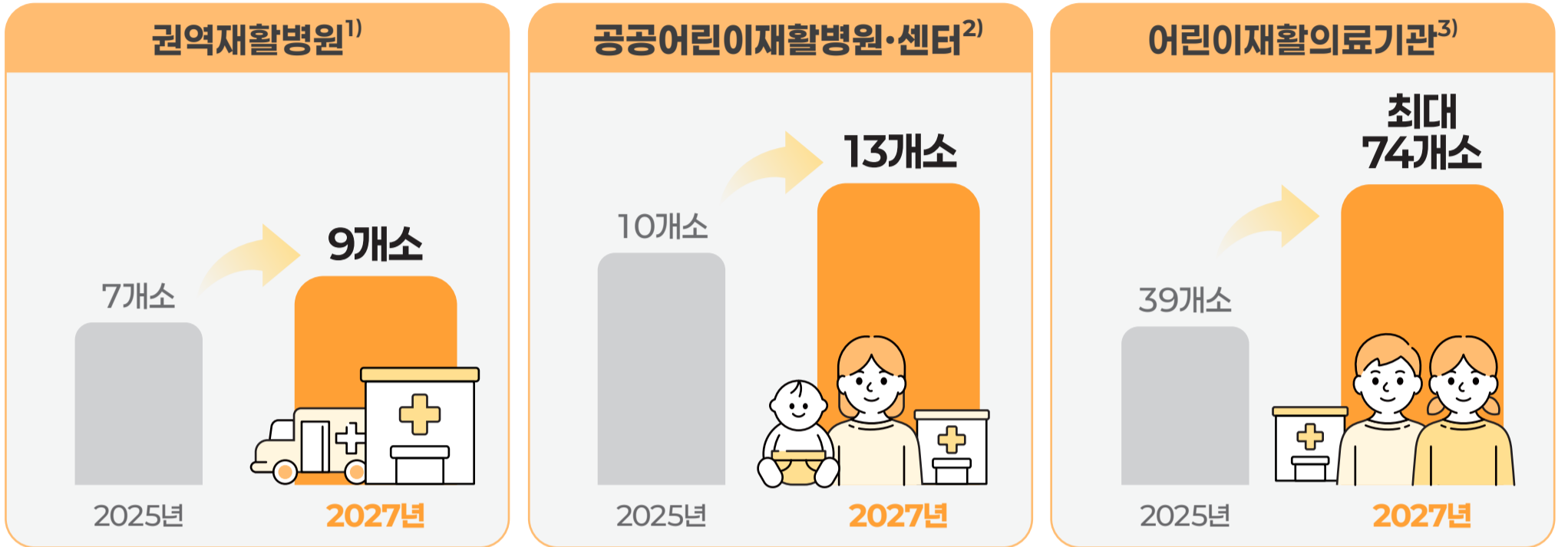
* (예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 인력 배치강화,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반복·정기 입원이 불가피한 중증질환자 활동지원 이용 기준 개선 검토 등



회복할 때 퇴원 후에도 살던 곳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① 사는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의료 제공기관 확충




1) 권역재활병원: 광역 단위로 건립하여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 병원. 복잡한 재활·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주로 담당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역 내에서 소아재활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설립·지원하는 어린이 전문 재활의료기관
 3)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소아재활(운동·작업·언어재활 등)을 제공하며, 지역 내 장애 어린이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포함

② 퇴원 후에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본격 추진(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재택 기반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 장애인에게도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개선비·건강검진비·보조기기 구매비 등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에게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교 내 간호사 배치·방문 

③ 생활체육·재활운동 등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 의사 소견(처방) 등에 따른 전문가의 재활운동 등 프로그램 제공 (보행·근력운동 등)
-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지원



건강할 때 2차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1 일상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받는 건강관리(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 확대 

2 건강검진이 쉬워지고, 검진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전국 100개소 이상 운영·확충(현재 25개소)
* 시설기준 합리화, 장비 최신화 등 제도 개선
- 건강검진을 받기 힘든 항목과 이유 등을 분석해 대안 검사방안 연구
- 검진 후 유소견자 → 후속 검사 안내, 건강교육 등 제공

3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소수장애인
체장장애 신설 및 소수장애인 인정범위 확대 등 등록기준 개선 
- 발달장애인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통한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 청각장애인
의료수어 표준화 및 확산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중심에서 여성암·부인과 진료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으로 전환

정책 인프라 보다 세밀히 장애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1 장애인 건강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국가 건강 통계에 장애인 구분 추가
* 지역사회건강조사 항목에 장애인등록현황 포함, 감염병 실태조사 통해 장애인 감염병 관리 현황 분석
- 장애인 건강 현황 심층 분석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등 발표 항목 확대 및 시계열 분석, 장애유형별 코호트 구축 등

2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중앙센터) 현장에 필요한 사업 개발, '신규 사업을 먼저 시험해보는 역할' 강화
- (지역센터) 장애 등록 신청 정보 연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